



그리운 사진

울산가온고 1-2 김민서

할머니 꼬수운 된장 냄새에
 풀 내음 섞여 사르르 번지면
 뿌연 연기 속에 떠오르는 얼굴
 봄날의 꿈만 같던 그의 찢한 향기

100년 된 은행나무처럼
 나만 보면 지었던
 그의 미소 한 방울
 그 옆에 걸든 커피 사탕 한 움큼

향기는 서툰 낙엽처럼 흩어져
 얼굴은 뒷산 무지개처럼 흐려져

내 품 안에는 사진만 남아
 17년 간의 우리 추억도
 사진에 쌓여가는 먼지처럼
 잊어보려 하면 흩어졌다
 그리워져 다시 쌓이네

자주 가던 도랑에서 기다려본다
그때의 미소로
건강했던 모습으로
다시 꼭 만나길

오늘도 내일도
그리울 사진
보고픈 할아버지

